

『죽음과 내셔널리즘:
전후 일본의 특공 위령과 애도의 정치학』

이영진(YUNGJIN LEE)

특공(가미카제)은 세계 전사(戰史)상 유례를 찾기 힘든 비극성을 내포한다. 그 비극성의 원천은 전과(戰果)가 아닌 죽음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점, 그러한 목적이 조직화된 작전의 형태로 전개되었다는 점, 무엇보다 수천 명의 학도병과 소년항공병이 그 무모한 작전에 동원되어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이토록 비극적인 특공의 죽음은 어떻게 기억되고 또 자리매김되어야 하는가. 그들의 죽음은 국가를 위한 순수하고도 성스러운 ‘순국(殉國)’인가, 그렇지 않다면 침략전쟁에 동원되어 안타깝게 죽어 간 ‘개죽음’에 불과한가. 이 책은 ‘특공의 성지’로 명명되는 일본 가고시마에서 장기간의 필드워크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 특공에 대한 기념과 위령이 전개되어 온 양상을 폭넓게 검토함으로써, 그러한 실천이 전후 일본이라는 시공간 내에서 갖는 의미와 한계를 ‘바깥’이 아닌 ‘안’에서 드러내려 하였다. 나아가 특공의 죽음이 내포하는 이러한 양의성에 주목하면서, 전사자에 대한 기념·현장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대국민국가의 논리를 넘어 ‘산 자는 죽은 자와 어떻게 마주해야 할 것인가’라는 윤리적·실천적 물음을 던지고자 했다.

이영진(李榮眞)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연구 및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한국문화인류학』, 『계간 문학들』의 편집위원이기도 하다. 주요 연구대상은 전후 일본의 사회문화 및 동아시아 기억의 장이다. 주요한 저서로 『죽음과 내셔널리즘: 전후 일본의 특공 위령과 애도의 정치학』(ICAS PRIZE 2019 우수도서)이 있고, 『애도의 정치학: 근현대 동아시아의 죽음과 기억』(공저)(2017)을 편했으며,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공저)(2016) 외에 다수의 학술 논문이 있다.